

# 신임 주미 中대사에 온건파 세평 부임

### 바이든 '해빙' 발언후 미국통 임명 수교후 가장 길었던 5개월 공백 해소 미·중 갈등 한복판서 역할 주목

중국의 대미 외교 베테랑인 세평(59) 신임 주미 중국대사가 23일(현지시간) 미국에 부임했다. 이로써 주미 중국 대사직은 지난해 12월 30일 친강 당시 대사가 외교부장에 오른 이후 줄곧 비어 있었다 5개월여 만에 채워지게 됐다. 5개월은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주미 중국대사의 공백기로는 최장이었다.

중국 관영 중앙TV(CCTV)에 따르면 뉴욕 JFK 공항을 통해 입국한 세 대사는 "나는 중국 인민의 대표이며 중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왔다"며 "이것은 나의 신성한 직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중국 인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며, 중·미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왔다"며 "이것은 나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중·미 관계는 심각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기에 사명에 대한 영광도 느끼지만 책임감을 더 크게 느낀다"며 "나와 내 동료들은 어려

움을 극복하고 책임을 다하며 사명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에 대해 "중·미 3개 공동성명(수교 공동성명 등)의 원칙에 따라 대만 등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대화를 강화하며, 이견을 관리·통제하고, 협력을 추진해 중·미 관계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1964년생인 세 대사는 주미대사관 공사, 북미 대양주사(副) 사장(국장), 미국 담당 외교부 부부장(차관) 등을 역임한 전형적인 미국통 베테랑 외교관이다.

그는 중국 외교라인 최고직위를 지냈던 양제츠 전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에 2000년대 초반 주미대사로 재직할 당시 양 전 위원의 깊은 신임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세 대사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외교부 홍콩 주제 특파원공사 특파원(주재원)을 지내는 동안 '범죄인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의 시위가 벌어졌을 때 이에 맞서 '과감하게 투쟁한다'는 이미지를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 심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2021년 외교부에서 대미외교 담당 부부장 자리

가 요동치는 동안 각종 갈등 사안이 불거졌을 때 미국에 외교 경로를 향하는 역할을 잇달아 맡았다.

전임 주미대사로, 강경한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의 대명사로 꼽히는 친강 현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한 이미지로 평가된다.

그러나 미국에 물러서지 않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기조를 충실히 집행할 것이기에 그의 개인적 성향이 현재 중국의 대미외교에 투영될 공간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중국의 신임 주미대사 파견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미·중 관계 해빙 발언 직후에 이뤄진 데 대해 주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초 미국 영공을 침범한 중국 정찰 풍선을 미국이 격추한 이후 냉각된 미·중 관계가 곧 해빙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류젠차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미국 민주·공화당 관계자, 학계 및 싱크탱크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23일 화상으로 제13차 미·중 정당대화 가 개최됐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

# 中 마지막황제 푸이의 파텍필립 손목시계 홍콩 경매 예상가 뛰어넘은 67억원에 팔려

중국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溥儀)가 착용했던 시계가 홍콩 경매에서 67억원에 낙찰됐다. 24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저녁 홍콩 필립스 아시아 옥션 하우스에서 진행된 푸이 황제의 소장품 경매에서 그가 착용했던 파텍필립 시계(사진)가 치열한 호가 경쟁 끝에 4천만 홍콩달러(약 67억원)에 낙찰됐다. 수수료를 포함한 낙찰가는 4890만 홍콩달러다.

이는 예상 낙찰가 300만 달러(약 39억원)를 가뿐히 넘어선 것으로, 낙찰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전화로 입찰에 참여한 낙찰자는 한 번에 1000만 홍콩달러를 추가로 제시해 이 시계를 차지했다.

1851년 스위스에서 설립된 파텍필립은 최고급 시계를 극히 소량 제작한다. 오데마 피게, 바쉐론 콘스탄틴과 더불어 '세계 3대 명품 시계' 제조사로 손꼽힌다.

필립스 아시아의 토마스 페라치 시계 부문 대표는 로이터에 "한때 황제가 소유했던 손목시계 중 최고의 결과(가액)"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앞서 2017년 경매에 나온 에티오피아 마지막 황제 하일레 셀라시에의 파텍필립 시계는 290만 달러(약 38억원)에 팔렸다. 같은 해 베트남 마지막 황제 바오다이아가 소장했던 롤렉스 시계는 500만 달러(약 66억원)에 팔렸다.

푸이는 1908년 2살의 나이로 청의 12대 황제에 올랐으나, 4년 만인 1912년 신해혁명으로 폐위당했다. /연합뉴스



기후활동가들 스위스 제네바 활주로 점거 시위. 그린피스를 비롯한 국제 환경단체 소속 활동가들이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국제공항에서 활주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박람회 전시를 위해 공항에 착륙해 있던 개인 항공기 주변에서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항공기 운항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위했다. /연합뉴스

# 러 본토 공격한 민병대는 '러시아자유군단'

### 反푸틴 러시아인들로 구성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서부 벨고로드 지역에서 이들 동안 러시아군과 교전을 벌인 무장세력의 정체와 구성이 무성하다. 이들 무장세력은 지난 22일 장갑차와 군용차량으로 무장한 채 벨고로드 지역에 침투해 최소 1명의 러시아 국경수비대원을 사살하고 현지 마을들을 공격해 파르트를 했다.

일부 농장 건물들이 부서지거나 불났고, 현지 주민들이 황급히 대피에 나서면서 심각한 교통체증이 빚어졌다. 러시아는 현지에 있던 핵무기 시설을 내륙으로 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환론은 무장세력이 '대테러작전'에 나선 러시아군의 반격을 받고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물러나면서 23일 일단 마무리됐다.

러시아 국방부는 브리핑에서 "대테러작전 과정

에서 테러리스트 70여명을 사살하고, 장갑차 4대, 차량 5대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격의 배후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권에 반대하는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인들로 구성된 '러시아자유군단'(FRL)과 '러시아의 용군단'(RVC) 등 2개 민병대가 지목되고 있다.

두 민병대는 22일 30만명의 구둑자가 있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자신들의 전투원들이 벨고로드 지역을 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영상도 공유했다.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두 민병대가 모두 푸틴 정권에 불만을 품은 러시아인들을 전투원들로 모집했으며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인 정보총국(HUR)과 연계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두 민병대는 작년에 창설됐으며, 지난 3월 또 다른 러시아 지역 브란스크를 공격하면서 두각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 日방위백서 "북한, 한층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

일본 방위성이 발간 예정인 '2023 방위백서' 초안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중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는 기술이 담겼다고 요미우리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이 24일 보도했다.

방위성은 매년 7월경 방위 정책의 방향과 주변국 군사 동향 등이 담긴 방위백서를 발간한다.

작년 7월 하순에 발간된 방위백서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우리나라(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기술했다.

올해 방위백서에는 '중전보다 한층'이라는 표현을 추가해 북한의 위협을 더 강조하는 셈이다.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더 실전적 형태로 도발 행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

다"고 지적했다.

올해 방위백서 초안에는 작년 말 일본 정부가 '국가안전보장전략'(안보문서) 수정을 통해 결정한 반격 능력 보유 등 근본적인 방위력 강화 방침도 담겼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위협 등 일본의 안보 환경에 대해 "새로운 위기의 시대 돌입"이라고 규정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고 기술했다. /연합뉴스

# 中,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 3명 나란히 사형집행

중국 법원이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남성 3명에 대해 같은 날 사형을 집행했다. 24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후베이성 사오간시 중급인민법원, 산둥성 웨이팡시 중급인민법원, 허난성 안양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각각 성폭행범 니모, 왕모, 쑤모 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이 인터넷 채팅으로 초등학교생이나 여중생을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악질적

이고 사회에 끼친 피해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신화사는 이들에 대한 사형 선고는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를 엄벌한다는 법원의 의지와 함께 부모·교사·사회에 위법 행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각종 범죄 행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해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동행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초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지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